

## 공공기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

- 조달청, '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'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(AI)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「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」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.

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, 보안을 위해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. 이번 공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, 공공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.

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▲자료·통계 분석 ▲보고서 작성 및 요약 ▲문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.

특히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△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△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'상' 등급 인프라(IaaS) 기반 서비스 △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'상'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.

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“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”며 “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동되는 초거대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영훈	(042-724-6111)
		담당자	서기관	김희준	(042-724-6141)

대한민국  
정책브리핑

